

A Corpus-based Research on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 Collocations: English Textbooks and National English Listening Tests

Dong Ju Lee¹⁾ · Na Eun Kim^{*1)}

¹⁾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영어 교과서와 전국 영어 듣기 평가에 나타난 고빈도 탈어휘 동사 연어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이동주¹⁾ · 김나은^{*1)}

¹⁾한국교원대학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medium-strength collocations, taking the form of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s followed by NP, are used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National English Listening Tests and the BNC spoken in order to examine if authentic delexical Verb+NP expressions were appropriately used in students' learning and assessment materials. For this, the study constructed corpora using twenty-four textbooks based on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nd National English Listening Tests in the years from 2011 to 2017. The analysis of the corpora revealed: First, the name of disease expressions of 'HAVE+NP' in the first grade English textbooks accounted for 14.5%. However, none of these expressions were included in the Listening Tests. Second, in case of the verb 'TAKE,' 'take a picture' was the most common phrase in the textbooks and the Listening Tests. The expressions where the verb 'TAKE' followed by NP were presented 51 times in the textbooks(71.8%), while presented 53 times in the LGSWE and 18 times in the LDOCE respectively. Finally, 'MAKE+NP' expressions did not show a variety of expressions compared to the expressions with the other verbs. Most collocations here were used with the names of food. Only 10 expressions were used in the textbooks among 64 expressions(38 expressions in the LGSWE and 26 expressions in the LDOCE), taking up 26.3% of the textbook expression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verb 'MAKE' did not show a wide range of expressions among the three target verbs. Hence, it is critical to include more collocations of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s such as 'HAVE', 'TAKE', and 'MAKE'+NP in the textbooks and the Listening Tests.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to balance the use of such expressions between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in order to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Key words :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 medium-strength collocation, communicative competence

* Corresponding Author : Na Eun Kim, eundna@naver.com

Received March 19, 2020; Reviewed June 17, 2020 Corrected June 20, 2020; Accepted June 23, 2020

© 2020. Institute of Brain base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Introduction

어휘는 제2언어 학습이나 습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학이나 언어교육의 주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언어학자들과 언어 교육자들뿐 아니라 언어 학습자들 또한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어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 2009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수는 2,988 내외, 2015 교육과정에서는 3,000 내외(초등 500, 중학교 750, 고등학교 영어 공통과목 550으로 총 1,800 내외와 나머지는 고등학교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전문 교과I)로 하여 교수·학습에서의 어휘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Ministry of Education, 2015).

제2언어나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어휘들이 결합되어 조합으로 쓰이는 언어(collocation)나 어휘 덩치(lexical bundle)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Kim, 2005; Lee, 2013). 이에 이러한 언어나 어휘 덩치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Miller & Fellbaum(1991)과 Fromkin, Rodman & Hyams(2003) 등의 학자들은 언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품사가 동사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 어휘로 빈도 높게 사용되는 동사를 선정하여 이러한 동사들과 긴밀하게 조합되어 빈도 높게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영어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학습 교재이다. 국가수준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에서부터 이해 기능으로서의 듣기 영역은 교과서 구성에서도 기본이 되며 동시에 핵심이 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Ministry of Education, 2015). 본 연구에서는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지는 전

국단위 영어 듣기 평가 자료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빈도 높은 동사 중심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빈도(frequency)’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과서에서 빈도를 고려한 어휘 사용 조정으로 학습자가 어휘나 언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EFL 상황에서는 영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나 교재를 통해 어휘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빈도 높은 동사와 결합되는 명사(구)의 언어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이 전국 영어 듣기 평가에서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표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2009 개정)에 따른 중학교 전 학년의 영어교과서(24종)에서 듣기·말하기 부분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국 영어듣기 평가 지문(script)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Antconc3.4.4w를 이용하여 고빈도 동사를 추출한다. 고빈도 탈어휘 동사(delexical verbs)의 종류와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원어민 코퍼스인 BNC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교과서에서 사용된 고빈도 탈어휘 동사 언어 패턴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영어 듣기 평가에도 진정성 있는 표현이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별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전국 영어 듣기 평가에서 고빈도 탈어휘 동사의 종류와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고빈도 탈어휘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언어의 빈도수와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교과서와 전국 영어 듣기 평가에서 제시된 고빈도 탈어휘 동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언어는 BNC와 비교하였을 때 진정성 있게 반영되어 있는가?

II. Literature Review

1. High Frequency Verb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Fromkin, Rodman & Hyams(2003)는 모든 언어의 문장에서 동사가 구조와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심축이 된다고 강조하며,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학습할 때 빈도가 높은 동사 어휘에 더 집중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동사는 논항(argument)의 의미 자질(semantic properties)을 한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언급했다(Ko, 2013). 빈도가 높은 동사의 쓰임은 좁은 범위가 아닌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지며 이것은 곧 다양한 의미와 쓰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EFL 상황에서는 고빈도 동사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Kang, 2008). 그러므로 무조건 많은 어휘를 학습하기보다는 빈도가 높고 자주 활용되는 동사의 용례와 의미를 우선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lexander(1987)도 고빈도 동사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목표어를 학습할 때 비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단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 단어의 의미와 용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 사용에 있어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므로 더 집중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빈도 동사의 학습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의 습득을 도와주며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2. Collocations and Listening Ability

Ellis(1997), Schmidt(2000), Nation(2001) 등의 어휘 학자들은 개별 단어만 학습하는 것보다 어휘 덩어리(chunk)를 활용한 듣기 학습은 학습자에게 억양, 발음, 강세에 대한 차원 높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화자의 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말하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듣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듣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별 어휘

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휘 조합으로 의미 단위인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경우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밝혔는데, 언어의 특징적인 구조가 더 정교화된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휘 학습에서 언어 학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언어 유형을 분류했다. Benson, Benson & Ilson(2010)은 언어를 문법적 언어와 어휘적 언어로 분류하였다. 복잡성에 따라 언어를 분류한 Cowie & Howarth(1996), 결합 강도에 따라 언어의 유형을 분류한 Hill(2000), 하향·상향 언어로 분류한 Sinclair(1991)가 있다. 학자들마다 언어에 대한 유형의 정의와 분류 방법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언어란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Hill(2000)은 어휘적 언어 중 단어의 결합 강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언어 유형의 분류에 그치지 않고 수업에서 가르쳐야 하는 언어 유형을 제시하였다. 독자적 결합의 언어(unique collocation)는 두 단어의 결합이 고유하여 변하지 않는 단어의 결합을 의미하며, 강한 결합의 언어(strong collocation)는 정해진 특정 단어와 결합하나 독자적 결합의 언어보다는 결합력이 약한 언어이다. 약한 결합의 언어(weak collocation)는 다른 언어 유형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단어들과 결합할 수 있어 단어 간의 결합력이 낮고, 단어를 보고 의미를 예측하기 쉬운 언어를 의미한다. 중간 결합의 언어(medium-strength collocation)는 강한 결합의 언어와 약한 결합의 언어 사이의 부류로 단어들 간의 결합력이 중간 정도인 언어를 의미한다. Hill(2000)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언어 유형은 네 가지 언어 유형 중 중간 결합의 언어이다. 중간 결합의 언어가 언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인 학습자들이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함께 결합하는 단어를 예측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간 결합의 언어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nson et al.(2010)이 제시한 어휘적 분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사+명사(구)’의 조합을 살펴보고, Hill(2000)의 언어의 결

함강도에 따른 중강도 언어를 선정하여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과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3. Corpora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본 코퍼스(corpus)란 언어 텍스트를 원리에 의해 수집해 놓은 것으로 언어 자료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Lee(2007)는 코퍼스 언어학은 빅데이터로서의 디지털화된 언어 자료를 코퍼스로 구축하고 컴퓨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어휘의 형태와 범주의 분포, 어휘-문법 교재 개발, 언어의 사용역(register)에 따른 어휘의 사용 양상과 의미, 변이(register variation), 학습자 중간언어 발달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였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코퍼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는 텍스트(machine-readable text)의 집합체란 개념으로 의미가 보다 확대되었다(Lee, 2007; O'Keeffe, McCarthy & Carter, 2007). 코퍼스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은 용어 색인검색(concordancing)과 빈도(frequency) 분석이다. 용어색인검색 기능을 통해 특정 검색어를 포함한 표현이 텍스트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코퍼스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검색한 후 정렬하는 방식은 검색한 어휘가 화면의 중간에 배치되며 좌우에 오는 단어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Keyword-in-context: KWIC)으로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빈도 분석을 통해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빈도 순서대로 단어 목록(wordlist)을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핵심어(keyword) 기능을 통해 특정 종류의 텍스트가 다른 종류의 텍스트에 비해 어떠한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단일 어휘(single word)의 빈도뿐만 아니라 연어(collocation)나 어휘 뭉치(lexical bundle)의 빈도도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코퍼스는 연구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일반 코퍼스, 특수 코퍼스, 병렬코퍼스, 학습자 코퍼스, 교육용 코퍼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교육용 코퍼스(pedagogical corpus)'는 교수·학습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텍스트나 학습자들이 표현한 문자나 음성 자료를 코퍼스로 구축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용 코퍼스를 이용하여 교재에 나타난 언어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언어자료기반 학습법(Data-Driven Learning: DDL)을 적용한 교재나 수업 자료를 설계하여 영어교실에 적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9; Lee, Kim & Jeong,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용 코퍼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전국 영어 듣기 평가 코퍼스를 구축한 후,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등장하는 고빈도 탈어휘 동사+명사(구)의 언어가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원어민 코퍼스인 BNC와의 비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표현이 영어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탐구하려 한다.

III. Methods

1. Materials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 2, 3 영어 교과서(24종)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20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2,988 개와 3,000 개로 교과서에 반영하는 어휘의 차이가 크게 없으므로 연구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읽기와 쓰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아울러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영어 듣기 평가(2011~2017년)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Selection of Target Collocations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 2, 3학년 영어 교과서 중 가장 많이 선정된 8종을 선별하여 구축한 교과서 코퍼스와 BNC 자료에서 나오는 고빈도 탈어휘 동사 언어를 연구 대상언어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Benson et al.(2010)의 어휘적 언어 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언어는 대부분 문법적 결합보다는 어휘적 결합의 비율이 더 높다. 어휘적 결합은 내용어의 결합을 뜻하며 이는 실제적인

언어 생성을 촉진하므로 어휘 학습에 유용하다고 했다(Kim, 2011). 또한 Benson et al.(2010)의 어휘적 언어 유형 중 ‘동사+명사(구)’가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어휘적 언어 중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모든 언어를 다루지 않고 ‘동사+명사(구)’에 국한하였다. 동사+명사(구)의 언어는 Hill(2000)의 언어 분류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2언어 및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학습 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사+명사(구)의 결합을 Hill(2000)은 중강도 언어라 지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빈도 탈어휘 동사와 결합 되는 중강도 ‘동사+명사(구)’ 언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High frequency verb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Order	Middle 1	Middle 2	Middle 3
1	Be	do	Be
2	do	be	do
3	listen	listen	listen
4	like	talk	have(825)
5	talk	have(471)	think
6	go	like	like
7	have(323)	think	talk
8	speak	go	know
9	look	want	want
10	play	speak	go
11	want	look	make(442)
12	check	know	say
13	make(163)	play	look
14	meet	see	speak
15	say	take(218)	get
16	sound	make(204)	take(311)
17	think	get	see
18	take(150)	check	read
19	see	practice	let
20	answer	choose	play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 나타나는 고빈도 동사는 <Table 1>과 같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서 빈도 높게 등장하는 동사는 have, make, take 순

이며, 2학년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have, take, make 순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2>는 연구 범위에 해당되는 전국 영어 듣기 평가 코퍼스 자료를 토대로 나온 고빈도 동사 목록이다. 듣기 평가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have, take, make 순으로 분포하였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have, take, make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High frequency verbs in listening tests

Order	Middle 1	Middle 2	Middle 3
1	Be	Be	Be
2	do	do	have(195)
3	have(106)	have(172)	do
4	see	go	like
5	like	like	go
6	want	want	get
7	go	take(69)	take(79)
8	let	get	think
9	get	help	see
10	take(38)	look	help
11	look	thank	look
12	need	know	know
13	help	think	need
14	know	make(46)	thank
15	buy	need	want
16	turn	play	buy
17	think	buy	make(44)
18	make(29)	visit	love
19	use	heard	say
20	find	read	check

3. Procedures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학교 1, 2, 3학년 8개의 출판사, 총 24종의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전국 영어 듣기 평가(2011~2017년, 총 6개년) 코퍼스에 대해 Antconc 3.4.4w를 이용하여 최다 빈출 동사를 추출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교과서에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 지문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코퍼스를 구축한다. 이어 Antconc를 이용하여 학년별 빈도 높은 동사 30개를 추출하는데, 이때 동사들은 다양한 굴절형을 포함시키기 위해 표제화(lemmatize)시켜 추출

하여 분석한다.

이후 결과로 얻어진 최상위 고빈도 탈어휘 동사 HAVE, TAKE, MAKE에 대해 콘코던스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 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본다. 이 때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LGSWE)(Biber, Johansson, Leech, Conrad & Finegan, 1999)에 나오는 HAVE, TAKE, MAKE+명사(구)의 형태로 결합하는 언어적 표현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단,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숙어적이거나 기타 표현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LDOCE)(Summers, 2003)에 따라 의미 갈래를 토대로 분류한다. 교과서와 듣기 평가, BNC에서 LGSWE 이외에 나타난 표현은 기타 표현과 숙어적 표현으로 나누고자 하였는데, LGSWE에서 제시한 표현과 숙어적 표현을 제외하고 기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기타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s

중학교 영어 교과서 코퍼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가 높은 동사 상위 30개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고빈도 탈어휘 동사 3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서 보았듯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교과서에서 HAVE, MAKE, TAKE, 2학년은 HAVE, TAKE, MAKE 빈도순으로 나왔다. 또한 듣기 평가에서는 HAVE, TAKE, MAKE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Hill(2000)에 의한 중강도 언어 표현에 대해 LGSWE를 참고하여 영어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TAKE, MAKE, HAVE+명사(구) 언어 표현들이 어떤 빈도와 비율로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와 논의이다.

2.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 Collocations in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Middle School 1>

1) TAKE

TAKE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150개의 용례를 보이며 동사와 명사(구)의 결합으로 사용된 수는 교과서는 92개, 듣기 평가에서는 35개였다. LGSWE에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표현 중에 'Take an order' 표현은 교과서에서는 7회 출현하였으나 듣기 평가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TAKE 뒤에 오는 명사(구) 표현은 'a course/lesson/class'와 'a picture/photo' 표현이었다. 교과서에서는 21개의 비교적 다양한 표현이 제시되었지만 듣기 평가에서는 10개가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에서 'Take an order', 'Take a temperature' 표현이 나타났으나 듣기 평가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상세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AKE+NP in middle school 1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A course / lesson / class	A picture / photo	12 / 8	13.04 / 22.85
2	A walk	A care	9 / 6	9.78 / 17.1
3	A picture / photo	Subway	8 / 4	8.69 / 11.4
4	An hour / hours / An order	A class	7 / 2	7.60 / 5.71
5	A bath	A trip / An x-ray / A bus / Time / An hour/hours	6 / 1	6.52 / 2.85
6	A trip / A look	-	3	3.26
7	A minute	-	2	2.17
	Place / A care / Drug / Medicine / Train / A rest / Time			
8	/ A taxi / A phone / A bus / A shower / A temperature	-	1	1.08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2) MAKE

MAKE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총 166개의 용례가 나오며, 상위 동사 30개 중 교과서에서는 13위, 듣기 평가에서는 18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MAKE+명사(구)’의 연어 표현은 총 166개 중 82개, 듣기 평가는 32개 중 20개로 나타났는데, 이를 분석하였다.

MAKE는 TAKE와는 달리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LGSWE에는 총 38개의 표현이 수록되어 있으나 교과서에는 2개의 표현과 듣기 평가에는 MAKE 동사 뒤에 음식 이름이 나오는 표현 외에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총 82개의 ‘MAKE+명사(구)’ 표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MAKE a(telephone) call’이었는데, 4회로 4.9%를 보였다. MAKE는 주로 뒤에 Spaghetti, Pizza, Tteokbokki 등의 음식 이름이 오는 표현들이 38회로 46.3%를 차지했다. 듣기 평가에서는 ‘MAKE+명사(구)’의 중강도 연어 표현이 나오지 않고 전체 20개 중 8회가 음식 이름과 사용되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MAKE a friend’의 표현이 2회 출현하여 2.4%를 차지했다.

3) HAVE

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HAVE 동사가 명사(구)와 결합한 형태는 각각 275개와 87개의 사례를 보였다.

고빈도 동사 HAVE, MAKE, TAKE 중에서 가장 높은 용례수를 보이며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명사(구)와 결합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HAVE 동사 뒤에 질병 이름이 함께 결합된 표현이었으나, 음식 이름이 오는 표현이 가장 많았다.

<Table 4>에서 보듯이 교과서에 나타난 ‘HAVE+명사(구)’의 표현 275개 중 질병 관련이 40번으로 14.54%를 나타낸다. 또한 HAVE 동사 뒤에 음식명이 오는 경우는 교과서는 33회로 12%, 듣기 평가에서도 6회로 6.89%를 차지했다. 한편 교과서에는 ‘HAVE an/no idea’ 표현이 10회로 3.64%를 차지한 반면, 듣기 평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Table 4> HAVE+NP in middle school 1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Disease / injury	Disease / injury	40 / 13	14.54 / 14.94
2	Idea	Time	10 / 5	3.64 / 5.75
3	Breakfast / Time	Dinner / A minute	9 / 2	3.27 / 2.30
4	Lunch / Problem	Breakfast	4 / 1	1.45 / 1.15
5	Dinner / A fight	-	2	0.73
6	A look	-	-	0.36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Middle School 2>

1) TAKE

중학교 2학년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 나오는 TAKE의 ‘동사+명사(구)’ 연어 표현은 각각 156회와 51회이다. 중학교 1학년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a picture/photo’ 표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듣기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LGSWE에서 나타난 표현 이외에 더 다양한 ‘동사+명사(구)’의 표현을 살펴보면 ‘TAKE stairs’(계단을 이용하다), ‘TAKE spot’(차지하다), ‘TAKE part in’(~에 참여하다)이 각각 1회, 5회, 4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만 나타난 표현은 a spot, a note, steps, stairs이며 듣기 평가에만 출현한 표현은 a deep breath로 1.96%를 차지했다. 각각 빈도수와 비율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TAKE+NP in middle school 2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A picture/ photo	A picture/ photo / A minute	34 / 6	21.79 / 11.76
2	A Course / lesson / class	An order / Course/class/ lesson / Part in	19 / 4	12.17 / 7.84
3	A break	A look / A care / Drug / medicine / A bus / An hour/hours	18 / 3	11.53 / 5.88
4	A care	Seat / Subway	7 / 2	4.49 / 3.92
5	A bus / Place/ Stairs / A minute / Steps / Turn	Time / A boat / Place / A deep breath	5 / 1	3.21 / 1.96
6	Subway / A look / A trip / A look	-	4	2.56
7	A note / A shower	-	3	1.92
8	Seat / A walk / Spot	-	1	0.64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2) MAKE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MAKE 용례는 총 209개이며 듣기 평가는 50회 사용되었다. 'MAKE+명사(구)'의 표현은 교과서는 106개, 듣기 평가는 30개가 나타났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듣기 평가에 출현한 표현은 'MAKE a reservation, MAKE a friend, MAKE an interview이다. 중학교 2학년에서도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사용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주로 음식명과 함께 사용되었다. LGSWE의 목록 이외의 교과서 표현은 MAKE a budget으로 1회씩 출현하여 0.93%를 차지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MAKE+NP in middle school 2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A friend	A reservation	4	3.77 / 1.33
2	A mistake	A mistake	3	2.83 / 1.0
3	Money	A friend	2	1.89 / 6.67
4	An interview / Plan / A budget	Plan / A noise / A difference	1	0.94 / 3.33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3) HAVE

중학교 2학년 교과서 8종에서 HAVE는 471개의 용례를 보이는데, 'HAVE+명사(구)'의 표현은 261개이다. 듣기 평가에서는 179개의 용례 중 119개를 추출하였다.

<Table 7> HAVE+NP in middle school 2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Disease / Injury	Time	25 / 9	9.59 / 7.56
2	Time / Dinner	Disease / Injury	9 / 8	3.45 / 6.72
3	Accident	Idea	8 / 4	3.07 / 3.36
4	Idea	Dinner / Lunch / Problem	7 / 2	2.68 / 1.68
5	Problem	A look / Children / Chance	5 / 1	1.92 / 0.84
6	Breakfast	-	3	1.15
7	A look	-	1	0.38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선정한 3개의 동사 중 HAVE 동사의 용례 수가 가장 많은 편이나, LGSWE의 목록에서 ‘동사+명사(구)’의 중강도 언어적 표현이 다양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LGSWE의 HAVE+명사(구) 표현은 총 26개로 교과서에서는 23.07%만 반영되고 있다. 주로 HAVE는 음식명과 결합하여 높은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24회로 9.20%를 차지하며 듣기 평가에서는 9회로 7.56%를 차지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유사하게 headache/toothache의 병명과 결합한 표현이 25회로 9.58%를 차지하고 듣기 평가에서는 8회로 6.72%를 나타냈다. 2학년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 나타나는 HAVE+명사(구)의 표현은 <Table 7>과 같다.

<Middle School 3>

1) TAKE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 나타난 TAKE와 명사(구)의 조합의 수는 각각 225개, 49개로 확인되었다. ‘TAKE a note’는 교과서에만 출현하고 듣기 평가에는 나오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TAKE an action’이 2번, ‘TAKE an exam’이 1번 나왔다. 교과서에는 있으나 듣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표현은 ‘TAKE a deep breath’였다. 한편 듣기 평가에 나온 표현은 ‘TAKE an order’로 LGSWE에서 제시되지 않은 표현이다. <Table 8>은 3학년 교과서와 듣기 평가의 ‘TAKE+명사(구)’의 출현 양상을 보여준다.

<Table 8> TAKE+NP in middle school 3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A picture / photo	A picture/ photo	53 / 8	23.55 / 16.32
2	A care	A course/lesson/class	20 / 6	8.88 / 12.24
3	A course / lesson/class	A bus / A look	18 / 4	8.00 / 8.16
4	A minute / Time	A minute	15 / 3	6.66 / 6.12

5	An hour/hours	A break / A care / An hour/hours	14 / 2	6.22 / 4.08
6	A look	Drug / medicine / Train / Elevator / An order / Seats	10 / 1	4.44 / 2.04
7	A note	-	9	4
8	A trip / An order	-	6	2.66
9	Place	-	5	2.22
10	Break / Drug/ Medicine / Part in	-	4	1.77
11	Action / Exam	-	3	1.33
12	Test / A ride / Memo	-	2	0.88
13	Deep breath / Seat / A bath / A shower	-	1	0.44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2) MAKE

MAKE는 교과서에서 322개, 듣기 평가에서는 77개가 나타났다. ‘MAKE+명사(구)’ 표현은 총 322개 중 134개였으며 듣기 평가에서는 47개 중 27개이다. ‘Make a friend/a mistake’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교과서에서 33번으로 가장 많이 나온 언어적 표현은 ‘Make a friend’(24.62%)였다. 한편 교과서에서는 1번 나왔으나 듣기 평가에 나오지 않은 표현은 ‘Make sense’이다. 듣기 평가에서 새롭게 나온 표현은 ‘Make a reservation’으로 3번이 나왔으며 (11.1%), ‘Make a decision’은 1회 출현하였다. 목록을 살펴보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MAKE+NP in middle school 3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A friend	A mistake	33 / 4	24.62 / 14.8
2	A noise	A reservation	9 / 3	6.71 / 11.1
3	A mistake	A noise	7 / 2	5.22 / 7.40
4	A note	phone call / Decision	5 / 1	3.73 / 3.70
5	An excuse	-	4	2.98
6	Time / A phone call / A wish / A difference / A decision	-	2	1.59
7	A plan / A speech / Fun / Sense	-	1	0.74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3) HAVE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HAVE의 용례는 825개로 선정한 3개 동사 중 가장 많았다. 이 용례 중 ‘동사+명사(구)’의 표현은 427개이며, 듣기 평가는 총 214개 중 121개이다. 가장 높은 빈도의 표현은 ‘Have time’, ‘Have a problem’으로 5.85%와 4.13%를 나타낸다. LGSWE의 목록 이외의 표현 중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Have an influence’로 23회(5.39%) 출현하였다. 그러나 듣기 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과서에만 나타난 표현은 ‘Have a fight’ 4회, ‘Have a difficulty’와 ‘Have a discussion’은 각각 1회였다. 목록을 살펴보면 <Table 10>과 같다.

<Table 10> HAVE+NP in middle school 3 textbooks and listening tests

O	T	L	F	%
1	Time	Problem	25 / 5	5.85 / 4.13
2	An influence	Time / Idea	23 / 4	5.39 / 3.31
3	Idea	Dinner	17 / 3	3.98 / 2.48
4	Lunch / Disease / Injury / Dinner	Disease / Injury / Lunch	10 / 2	2.34 / 1.65
5	Breakfast	Breakfast / A heart / Choice	7 / 1	1.64 / 0.83
6	A fight	-	4	0.94
7	Problem / Chance	-	3	0.70
8	A heart / Difficulty / A minute / A discussion	-	1	0.23

O: Order T: Textbooks L: Listening Tests F: Frequency

3.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 Collocations in Textbooks and BNC Spoken

1) TAKE

영어권 코퍼스인 BNC spoken에서 TAKE의 용례는 1,714개이며 TAKE 뒤에 대명사와 ANYTHING, SOMETHING 명사가 오는 경우를 제외한 수는 436개로 두 번째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하지만 HAVE, MAKE보다 다양하게 명사(구)와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LGSWE에서 제시하는 ‘TAKE+NP’ 표현은 53개이며, 숙어적 표현으로 분류한 표현은 18개이다. 이 중 교과서에 반영된 표현은 각각 39개이며, 숙어적 표현은 13개이다. 총 71개의 표현 중 51개가 사용되어 71.83%가 반영되었다. 다음은 LGSWE에는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TAKE+NP 결합 표현이다.

Take(any/no) notice(주의하다), Take advantage(이용하다), Take a/the piss(놀리다/장난치다), Take the opportunity(기회를 잡다), Take ages(시간이 오래 걸리다), Take turns(교대로 돌아가며 하다), Take change(감안하다), Take a leak(소변을 보다), Take effect(효력을 발휘하다), Take a call(관객의 갈채에 보답하다), Take a joke(농담하다), Take a pity(동정하다), Take pleasure(즐거워하다), Take a risk(위험을 무릅쓰다)

*숙어적 표현: Take a ride(타고 가다), Take account(알게 되다), Take a vote(투표 하다), Take advice(조언을 받아들이다), Take responsibility(책임을 지다)

*숙어적 표현: Make a reservation(예약하다), Make an excuse(변명하다), Make a response(응답을 하다), Make use of(이용하다), Make payment(지불하다), Make a suggestion(생각을 말하다), Make one's mind(결정하다), Make allowance(감안하다), Make a claim(청구하다), Make a change(변경하다), Make a mess(뒤범벅을 만들다), Make an inquiry(연구하다), Make comments(말을 참견하다), Make a recommendation(추천하다), Make a contribution(헌신하다), Make an appearance(잠깐 얼굴을 내밀다), Make a commitment(노력하다), Make progress(진행하다)

2) MAKE

MAKE는 BNC에서 1,690개의 용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대명사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제외하고 'MAKE+명사(구)' 표현은 316개이다. LGSWE에서 제시된 38개중 교과서에 반영된 표현은 10개(26.31%)였다. 숙어적 표현 26개 중 5개가 나타나 19.23%를 보였다. 총 64개의 표현 중 15개로 23.43%만 반영된 것으로 보아 다른 동사에 비해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은 LGSWE에는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MAKE+NP 표현이다.

Make an appointment(약속하다), Make arrangement(준비하다), Make a/the bed(잠자리를 정돈하다), Make contact(연락을 하다), Make a deal(거래를 하다), Make an/every effort(노력하다), Make a fortune(재산을 모으다), Make a fuss(소란을 피우다), Make a bad/good impression(인상을 남기다), Make a joke(농담을 하다), Make a living(생계를 꾸리다), Make a move(여정을 떠나다), Make a noise(시끄럽게 하다), Make a point(주장을 밝히다), Make a profit(이윤을 내다), Make a sound(소리를 내다), Make a statement(성명하다), Make a (fresh) start(출발하다)

3) HAVE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AVE는 가장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다. 3,459개 중에서 명사(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용례는 1,092개이다. LGSWE에서 제시한 총 26개의 표현과 숙어적 표현 12개 중 중학교 전 학년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표현은 각각 18개, 4개이다. 총 38개의 표현 중 22개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57.89%가 반영되었다. BNC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은 표현은 다음과 같다.

Have a word/with(~와 잠깐 이야기를 하다), Have a go(한번 시도해보다), Have a bath(목욕을 하다), Have a/no the right(권리를 가지다), Have a baby(아기를 낳다), Have no choice(선택의 여지가 없다), Have a rest(쉬다, 휴식을 가지다), Have a tea(차를 마시다)

*숙어적 표현: Have a minute(시간을 가지다), Have an accident(사고를 겪다, 당하다), Have a smoke(담배를 피우다), Have a run(연속 상연하다), Have a chat(대화를 하다), Have an operation(수술을 받다), Have a voice(발언권이 있다), Have a laugh(재미있어 하다)

4. High Frequency Delexical Verb Collocations in Listening Tests and BNC Spoken

1) TAKE

듣기 평가에서 TAKE 동사의 전체 용례는 186개이며 명사(구)와 결합한 표현은 135개이다. LGSWE에서 제시한 총 53개의 표현과 숙어적 표현인 18개의 표현 중 듣기 평가에 반영된 표현은 각각 12개, 4개이다. 총 71개의 표현 중 16개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22.53%가 반영되었다. 또한 BNC에 나오는 표현과 듣기 평가의 표현을 비교해 본 결과, BNC에서 나온 43개의 표현 중 12개 표현이 등장하여 BNC의 27.90%가 듣기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영된 표현은 'place, time, a care, a picture, a look, a rest, an hour/hours, a minute, a course, medicine, seat, train'이다. BNC와 비교해 보았을 때, 듣기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은 TAKE+NP 표현은 다음과 같다.

Advantage, Ages, Aim, A bath, A break, A breather, A cab, A call, A chance, A charge, Control, A degree(in), Effect, A(quick) glance, A hike, An interest, A joke, A Leak, A message, A minute, A nap, (any/no)part, A pay cut, A pee, A peep, A/the piss, Pity, Pleasure, Possession, Refuge, Revenge, A risk, Shape, Shelter, A shower, Sides, The trouble, Turns, A walk, A(long) while

*숙어적 표현: Temperature, The stairs, The spot, The steps, The memo, Action, Exam, A ride, Account, Vote, Note, Advice, Responsibility

2) MAKE

듣기 평가에서 MAKE 동사의 전체 용례의 수는 119개이며 명사(구)와 결합한 표현은 77개이다. LGSWE에서 제시한 총 38개의 표현과 숙어적 표현인 26개의 표현 중, 듣기 평가에 반영된 표현은 각

각 5개, 3개이다. 즉, 총 64개의 표현 중 8개의 표현이 사용되어 12.50%가 반영되었다. 또한 BNC에서 나온 41개의 표현 중 3개 표현이 듣기 평가에 나타났는데, 이는 BNC에서 7.32%가 반영된 것이다. 반영된 표현은 'A decision, a mistake, a call'이다. BNC와 비교해 보았을 때, 듣기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은 MAKE+NP 표현은 다음과 같다.

An appointment, Arrangements, A bargain, A/the bed, a(clean) Break, Contact, A deal, An/every effort, Eyes, A fool of one(self), A fortune, A fuss, A bad/good impression, A joke, A killing, A living, Love, Matters, Money, A move, A nuisance, A pest of oneself, A point, A profit, sense, A sound, A speech, A statement, A(fresh) start, Time, Work

*숙어적 표현: A budget, A wish, An excuse, A response, Use of, Payment, Suggestion, One's mind up, Allowance, A claim, A change, A mess, A will, An inquiry, An interview, Comments, Progress, Recommendation, Contribution, Amendment, Appearance, A commitment, An assumption

3) HAVE

듣기 평가에서 HAVE 동사의 전체 용례 수는 473개인데, HAVE+NP 표현은 327개이다. LGSWE에서 제시한 총 26개의 표현과 12개의 숙어적 표현 중 듣기 평가에 반영된 표현은 각각 10개, 1개이다. 총 38개의 표현 중 11개의 표현이 사용되어 28.94%가 반영되었다. 또한 BNC에서 나온 30개의 표현 중 7개 표현이 듣기 평가에 나타났는데(23.33%), 반영된 표현은 'A look, time, problem, idea, breakfast, chance, choice'로 총 7개이다. BNC와 비교해 보았을 때, 듣기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은 HAVE+NP 표현은 다음과 같다.

A baby, A bath, A care, A clue, A drink, A fit, A go(at), A mind,(to), No intention, Reason, A rest, A/no/the right, A talk(about/with), A taste,(for), Tea, a word(with)

*숙어적 표현: A fight, An accident, A discussion, An influence, A difficulty, A smoke, A run, A chat, An operation, A voice, A laugh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1. Conclusion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휘 학습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어휘 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 고찰을 통해 어휘 학습에서 언어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사소통의 중심인 말하기와 듣기 기능 학습을 위한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 그리고 전국단위 영어 듣기 평가에 어떠한 언어 표현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범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전국 영어 듣기 평가와 중학교 전 학년의 영어 교과서를 출판사 별 8종, 총 24권을 선정하여 코퍼스 구축하였다. Benson et al.(2010)의 어휘적 언어 중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동사+명사(구)’ 언어 표현을 대상으로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동사+명사(구)’의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고빈도 탈어휘 동사 HAVE, TAKE, MAKE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명사(구)를 각 중학교 교과서와 듣기 평가, BNC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AVE+NP’ 표현 중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는 ‘HAVE+질병명’이 14.54%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듣기 평가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Have an idea’가 3.64%를 보였으나 듣기 평가에서는 이 표현이 출현하지 않았다. 교과서에만 쓰인 표현으로 ‘Have problem’, ‘Have a fight’, ‘Have a look’도 있었다. 이를 통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이 듣기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빈도 높은 언어 표현들이 듣기 평가에서도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 2학년 듣기 평가와 교과서에서 나온 표현들을 살펴보면 듣기 평가에서는 ‘Have children’, ‘Have a chance’는 0.84%를 보였으나 교과서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즉, 교과서에서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표현이 듣기 평가에 등장한다면 학습하지 않은 표현을 평가에서 처음 접하는 것이므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3가지 고빈도 탈어휘 동사 중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이는 TAKE는 다양한 용례를 나타냈다. ‘TAKE+NP’의 표현 중 영어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차지한 표현은 ‘Take a picture/photo’로, 교과서에서 8회로 8.69%를 차지했으며 듣기 평가에서는 8회로 22.85%였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Take a walk’은 9회로 9.78%를 차지했으나 듣기 평가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 나온 표현이 듣기 평가에 1회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학습 내용이 평가에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처음 출현한 표현은 ‘Take stairs’로 5회 출현했으며 3.21%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듣기 평가에서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즉, 듣기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표현은 앞서 언급한 ‘Take stairs’ 표현과 ‘Take spot’인데 각각 1회로 0.64%를 나타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1회 출현한 위의 두 가지 표현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표현이 듣기 평가를 통해 골고루 노출이 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한 학습이 되도록 반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MAKE+NP’의 표현이 영어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보인 표현은 ‘Make a friend’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표현은 ‘Make plans’로 3회가 사용되어 3.66%를 차지했다. MAKE는 HAVE, TAKE와는 달리 음식명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46.34%를 보였으며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도 음식명과

함께 오는 표현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그 외의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 골고루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학교 전 학년 영어교과서 24종과 원어민 코퍼스인 BNC spoken을 비교해 본 결과, BNC에서 TAKE 용례의 전체 수는 1,714개이며 ‘동사+명사(구)’의 결합 표현은 436개였다. 교과서에서 TAKE의 전체 수는 679개이며 결합 표현은 473개이다. 교과서에서 사용된 TAKE 표현은 LGSWE에서 제시한 53개의 표현과 숙어적 표현 18개, 총 71개 표현 중 51개가 사용되어 71.83%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BNC는 총 71개 중 38개가 사용되어 반영 비율은 56.52%임을 알 수 있었다. 듣기 평가에서는 71개의 표현 중 16개 표현이 제시되었으며 22.53%가 반영되었다. 듣기 평가와 BNC를 비교해 본 결과, 듣기 평가에 BNC에서 나온 표현의 43개 중 12개가 제시되어 27.90%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및 듣기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빈도 탈어휘 동사 3개를 추출하여 언어적 표현의 용례 및 비율을 살펴본 결과, 동사의 언어적 쓰임이 다양하고 고르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MAKE는 주로 ‘~먹다’의 의미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언어적 표현도 다른 연구 대상 동사들의 활용도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고빈도 동사는 실제 BNC에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곧 경제성 있는 어휘로 보이며 이 동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쓰임과 의미를 형성해내는 표현들을 교과서나 듣기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영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빈도 동사들과 언어 표현에 대한 학습이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의 어떤 측면에서 향상이 되는지 추후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볼 수 있다.

2. Implications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전국 영어 듣기 평가에서의 언어 표현 사용 양상에 대한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장 높은 비율과 빈도를 차지하는 동사+명사(구)의 결합이 실제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HAVE+NP의 다양한 언어 표현 제시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HAVE+명사(구)는 주로 음식명이나 병명이 가장 높았으며 듣기 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가장 다양성이 낮은 표현은 MAKE이며 전 학년에서 4~5개의 표현이 집중·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외국어나 제2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 문치로서의 언어 표현들이 교과서에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를 통해 접한 표현들이 듣기 평가에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학습과 평가의 환류효과(washback effect)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원어민 코퍼스인 BNC와 비교했을 때, 진정성 있는 표현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BNC에서는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된 반면,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서도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진정성 있는 고빈도 어휘와 언어 표현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에서 사용된 표현이 듣기 평가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과서와 듣기 평가 간에 균형 있는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고빈도 동사가 어떠한 명사(구)와 결합하여 흔하게 활용되는지를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재인 교과서는 물론 전국 단위 평가인 듣기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어휘 습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이 교과서의 단원 간, 학년 간에도 연계와 위계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lexander, R. J. (1987). Fixed expressions in English: Reference books and the teacher. *ELT Journal*, 38(2), 127-134.

- Benson, M., Benson, E., & Ilson, R. (2010). *The BBI combinatory dictionary of English: Your guide to collocations and grammar*. Philadelphia, MA: John Benjamins.
-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New York: Longman.
- Cowie, A. P., & Cowarth, P. (1996). Phraseological competence and written proficiency. *British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11, 80-93.
- Ellis, N. C. (1997). Vocabulary acquisition: Word structures, collocation, word-class, and meaning.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pp. 122-1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omkin, V., Rodman, R., & Hyams, N. (200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7th ed.)*. Boston: Heinle & Heinle.
-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s: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pp.47-69).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Kang, Sangyo. (2008). *A corpus-based study of V+NP collocation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oung University, Seoul.
- Kim, Jinsuk. (2011). *Analysis on collocations in the 2nd grade revised English text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Kim, Misook. (2019). A corpus-based error analysis of spoken English produced by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Teacher Education*, 35(3), 147-164.
- Kim, Nakbok. (2005). *A study on collocation-based English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Ko, Sinae. (2013). *A Study of the sentence patterns verbs and the high-frequency verbs in the English textbooks and the movie "Love actual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ungbuk.
- Lee, Dong Ju. (2007). *Corpora and the classroom: A computer-aided error analysis of Korean students' writing and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data-driven learning materi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ssex, Colchester, United Kingdom.
- Lee, Dong Ju. (2013). Data-driven learning(DDL) approach: Is it applicable to Korean EFL classroom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0(3), 45-86.
- Lee, Dong Ju., Kim, Misook., & Jeong, Boram.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data-driven learn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8), 559-588.
- Miller, G. A., & Fellbaum, C. (1991). Semantic networks of English. *Cognition*, 4, 197-229.
- Ministry of Education. (2015).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Keef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Language use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and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ummers, D. (2003)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Harlow, Essex: Pearson Education.

[저자의 소속과 직위]

이동주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제1저자

김나은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졸업, 교신저자